

이용악 시의 저항성 연구

The Study of Resistance in Li-Yong-Ak's Poetry

이길상(단국대)

차례

- | | |
|-------------------|-----------------------------|
| 1. 서론 | 4. 유이민 시를 통한 소극적 저항과 적극적 저항 |
| 2. 저항시의 개념과 범위 | 5. 결론 |
| 3. 이용악의 생애와 유이민 시 | |

1. 서론

이용악 시의 논의가 시작된 때는 1980년 이전부터이지만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나 연구서는 거의 없었다. 이용악의 시 연구의 경우 광복 이전의 연구자는 오직 최재서 뿐이다. 그는 『시와 도덕과 생활』에서 “이 시인이야말로 정히 생활을 생활대로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노래한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인생과 시인”¹⁾이라고 논평했다. 광복 후 월북했기 때문에 그의 시세계는 등한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수형이 편집한 시집²⁾이 1949년에 발간되었지만 여전히 관심을 끌지 못했다. 1980년 이후 이용악 문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여러 연구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1) 최재서, 『시와 도덕과 생활』,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200쪽.

2) 이수형, 『이용악집』, 동지사, 1949.

중에서 『이용악시전집』에 수록된 윤영천의 장문의 해설은 이용악 시에 대한 종합적 연구 성과로서 주목할 만하다.³⁾ 김용직은 『현실의식과 서정성』에서 이용악의 대표적인 시 「북국의 가을」과 「북쪽」, 「풀벌레소리 가득 차 있었다」, 「낡은 집」 등을 예로 들면서 “1930년대에 적잖이 발표된 ‘빈 궁의식’을 작품 바닥에 깔았지만 그것을 생경하게 드러내는 시를 쓰지는 않았다”⁴⁾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유종호는 『다시 읽는 한국 시인』에서 「오랑캐꽃」에 대해 주로 논평했지만 이용악의 중요한 저항시에 속하는 「전라도 가시내」를 논평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⁵⁾ 이는 이승원도 마찬가지다.⁶⁾ 그 점에서 「전라도 가시내」의 정치적 의미⁷⁾를 거론한 윤영천의 연구와 대조적이다. 현재 이용악 시 연구는 이용악 시의 여러 방면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어의 통계 및 분석에까지 진척되고 있다.⁸⁾

이용악의 시를 보는 관점에 따라 분석의 방향도 달라지겠지만, 오양호는 비교적 최근 논저인 「일제 강점기 북방파 시에 나타나는 시의식」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용악의 북방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는 아버지와 손주와 할아버지, 부모며 동생 등으로 표상되고 있는 가족사의 문제, 그 다음은 죽음과 이어지는 적막함, 그리고 셋째는 이런 문제가 우리의 토속어로 응결되어 음향적인 뉘앙스에서 오는 매혹적인 포예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⁹⁾

이 논평은 이용악 시의 중심적 주제를 가족사와 관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오양호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연구자의 견해다. 가령 한정호도 「이

3) 윤영천, 「민족시의 전진과 좌절」, 『이용악시전집』, 창작과 비평, 1988.

4) 김용직, 「현실인식과 서정성」, 『한국현대시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5) 유종호, 『다시 읽는 한국 시인』, 문학동네, 2004, 201쪽.

6) 이승원, 『현대시인론』, 개문사, 1993, 199쪽.

7) 윤영천, 앞의 책, 222쪽.

8) 김철준·임형재, 『이용악의 시의 시어 통계와 분석』, 도서출판 역락, 2009.

9) 오양호, 「일제 강점기 북방파 시에 나타나는 시의식」, 『만주이민문학연구』, 문예출판사, 2007, 154쪽.

용악의 가족사-개인 체험을 넘어 민족 체험으로』에서 「강가」를 한 예로 들면서 “해체된 가족의 고통을 민족 현실로 압축시켜 묘사해 주고 있는 작품이다”¹⁰⁾고 말하고 있다.

이용악의 시세계를 가족사적인 세계로 간주하는 해석은 그것대로 타당성이 있다. “우리의 문학작품 속에서 가족 모티프는 개인과 사회의 매개체로써 당대 사회·역사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소재”¹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개인적,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는 시대감각이 예민한 시인의 양심은 그와 같은 현실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사적 관심을 넘어서 일제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역(異域)의 유민만이 아니라 “고향에 남은 농민들 역시 언제 땅을 떼일지 모르는 잠재적인 유민”¹²⁾으로 볼 때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 입각한 이용악의 저항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가 이용악 시에 나타난 저항의 양상과 성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연구 상황 때문이다.

2. 저항시의 개념과 범위

이용악의 저항시의 검토에 앞서서 밝혀져야 할 것은 저항시의 개념과 저항시의 범위다. 그 저항은 정치적 함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정상적 생활을 위한 보편적 가치로서의 정의와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통치 권력에 대한 저항이다. 일제 강점기의 저항시가 그 예로서, 조선 식민통치자의 언론 탄압과 경제적 수탈에 대한 양심적 작가들의 저항이

10) 한정호, 『이용악의 가족사-개인 체험을 넘어 민족 체험으로』, 《문예연구》 2006 겨울호, 문예연구사, 2006, 63쪽.

11) 위의 책, 71쪽.

12) 나병철, 『유민화된 민중과 디세미네이션의 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0집, 신아출판사, 2015, 253쪽.

었다. 따라서 그 저항에는 시대적 정치상황과 정치이념에 대한 양심적 작가의 관심이 반영된다. 그 저항은 한국의 경우에도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의 고취를 위한 것이었다. 이용악의 경우 저항시의 창작 동기도 유이민이 절감한 민족의식의 자극이었을 것이다. 그 저항의 수단은 일제 통치의 잔인성과 민족차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박탈 등에 저항하기 위한 현실 폭로와 현실 비판을 통한 고발과 민족의식의 자극 등이다.

저항시는 소극적 저항시와 적극적 저항시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구별은 정치적 행동양식에서 소극적 점진파와 적극적 급진파를 구별하는 것과 같다. 소극적 저항시를 저항시의 범주에 넣은 것은 그 시가 검열제도라는 장벽과 일제와 타협할 수도 없고 적극적, 투쟁적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고민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저항문학도 대부분 그 두 유형을 보인다. 적극적 저항시가 소극적 저항시보다 그 수효가 적은 것은 그런 시의 창작은 쓰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일제의 검열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용악의 경우 소극적인 저항시는 약 6편이지만 적극적인 저항시는 약 3편이다. 심훈의 적극적인 저항시도 「그날이 오면」 1편이고 이상화의 경우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편뿐이다. 소극적 저항시의 요건은 일제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에의 폭로와 이에 대한 저항적 인종(忍從)이라면 적극적 저항시의 요건은 그런 현실의 폭로와 저항의지의 결합, 현실 타파의 능동적 의지의 암시, 및 희망적 미래의 전망이다. 저항의지의 표현에서도 소극적 저항시의 어투는 대체로 온건하고 차분하지만 적극적 저항시의 어투는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3. 이용악의 생애와 유이민 시

이용악의 저항시에 대한 검토는 작품 본위로 진행할 것이지만 그의 생애와 관련된 전기적 사실도 참고하였다. 이용악의 전기적 사실은 두 가지

로서 그의 출생지와 학업이다. 먼저 그의 출생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대부분의 시, 특히 저항시의 저류나 분위기를 형성한 북방정서가 그의 출생지의 자연환경 및 그 출생지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가의 출생지와 학업이 그의 작품 생성에 불가시적으로 깊이 작용한다는 것은 문학사적으로 입증되어왔다. 이빨리프 페느가 ‘인종’, ‘시대’, ‘환경’을 작품의 3대 결정요소라¹³⁾고 주장한 것은 유명하다. 소위 북방정서와 남방정서는 지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서구에서도 독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작가의 작품은 보다 침울하고 비관적인 반면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작가의 작품은 대체로 쾌활하고 낙관적임은 공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지리적 환경은 그의 저항시에 심층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문석은 『근대시의 역사지리학-이용악론』에서 “고향이 차지하는 지리적 위상이야말로 이용악의 시세계를 지탱하는 숨겨진 기둥에 해당되는 것이다”¹⁴⁾라고 지적했다.

경성군청 소재지이며, 북으로 나남(羅南) 4킬로 남으로 주을(朱乙) 4킬로, 시가지의 남쪽 작은 평야를 냇물이 흐르고, 서남·서북에 나직한 산과 아득한 서쪽에 해발 2천 5백 미터의 관모연령(冠帽連嶺)이 사철 백설로 빛나고, 동으로 2킬로에 푸른 동해가 웅얼거린다.¹⁵⁾

이용악의 출생지는 함경북도 경성이다. 산과 바다 특히 ‘冠帽連嶺’의 백설이 연상시키는 모진 추위는 북방정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의 시에 형상화된 북방정서는 대부분 풍경묘사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풍속에 기반을 둔 백석 시의 북방정서와는 구별된다”¹⁶⁾는 특색을 지닌다.

13) Hippolyte Taine, *History of English of Literature*, Trans. by Henri Van Laun, New York: Holt, c1872, pp.22-30.

14) 오문석, 『근대시의 역사지리학-이용악론』, 《문예연구》 2006 겨울호, 문예연구사, 2006, 49쪽.

15) 『통계연감』, 남조선과도정부, 1943.

또한 출생지와 관련된 한국 역사를 참고한 것은 그 역사가 이용악의 저항 시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함경북도는 조선시대에 평안도 및 전라도와 함께 정치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된 변두리 지방이었다. 이용악은 유이민들의 연대의식을 취급할 때 소외된 지역을 극명하게 시에 표출했다. 『전라도 가시네』에서 함경도 유이민과 전라도 유이민을 선택한 심층적 동기는 소외되어온 두 지방 후손이 공통적으로 느껴온 박탈감에 대한 공감이었을 것이다. 극도로 곤궁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하여 주로 가까운 만주로 이주한 일제 강점기의 유이민을 윤영천이 정치적 난민¹⁷⁾이라고 말한 것은 적절하다.

이용악 시의 검토를 위한 두 번째 전기적 사실은 그의 학업이다. 일본의 상지(上智)대학이 카톨릭 대학인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그 대학의 수업과정에서 배우고 어느 정도 내면화한 기독교 정신, 가난한 자, 병자, 죄인 또는 사마리아인처럼 차별받는 자를 구원하는 예수의 정신이 그의 저항시에 침투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시가 『해가 솟으면』이다.

잠잠히 흘러내리는
개울을 따라
마음 넓도록 추잡한 거리로 가리
날이 갈수록 새로히 닫히는
무거운 문을 밀어제치고

조고마한 자랑을 만날지라도
함부로 푸른 하늘을 대할지라도
내사

16) 이승원, 앞의 책, 193쪽.

17) 윤영천, 앞의 책, 194쪽.

모자를 벗어 반갑게 흔들어주리라

술한 꽃씨가 가슴에서 튀어나오는 깊은 밤이면
손뼉소리 아스랑게 들려오는 손뼉소리
멀어진 모오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호을로 거리로 가리

욕된 나날이 정녕 숨가쁜
곱새는 등곱새는
엎디어 이마를 적실 샘물도 없어

— 『해가 솟으면』 전문(81쪽)¹⁸⁾

산과 가까운 개울과 만나는 거리는 도시 변두리의 빈민촌인데 화자의 마음이 쏠리는 곳은 세상 사람이 천대하는 ‘추잡한 거리’의 꿈추나 불구자의 비유인 ‘등곱새’다.

그 ‘거리’를 생각하면 슬퍼진다는 것은 그 거리를 동정하고 연대 감정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날이 갈수록 새로히 달히는 무거운 문”을 굳이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용악은 ‘추잡한’ 거리의 천민과 불구자만이 아니라 속물들에게까지도 연대 감정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바 이때의 감정은 인류적 연대 감정이다. 이는 『전라도 가시내』에서 나타났던 민족적 연대 감정에서 한층 발전된 것이다. 그것은 민족과 계층을 초월한 세계주의적 종교인 기독교의 만민평등사상에 연유한다. 이를 입증하는 구절이 “멀어진 모오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호을로 거리로 가리”이다. 시적 화자는 이 구절을 통하여 인류를 구제한 예수를 모방하려는 것이다. 이런 정신은 『항구에서』에서 언급된 ‘갈바리’를 상

18) 윤영천 편, 『이용악 시전집』, 창작과 비평, 1988. (본 논문에 인용되는 이용악 작품의 출처는 위와 같다. 이하 인용되는 이용악 작품은 작품명 뒤에 쪽수만 표기한다.)

기시킨다. 이 시에서도 화자의 관심은 일상적인 '친구'를 넘어선 광범한 민중의 세계인 보이지 않는 '바다'로 넓혀지고 있다. 이 작품들에 침투한 그의 종교적 감정의 원천은 상지대학 시절의 기독교 체험일 것이다. 그 체험과 인류애의 정신이야 말로 일제의 횡포에 저항하는 시의 창작동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1930년대에 발표된 저항시는 대부분 『분수령』과 『낡은 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8. 15 해방 후에 발간된 『오랑캐꽃』에 실려 있는 저항시는 「강가」와 「전라도 가시내」 등이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용악은 가난과 노동 및 가족 해체 같은 개인적 체험을 식민지 현실의 보편적 경험으로 승화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만, 그가 주제로 삼은 그 보편적 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 유이민이 된 거래의 체험이다. 그는 그 체험을 미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형상화함으로써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다. 이를 대표적으로 입증하는 시가 「낡은 집」, 「전라도 가시내」,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풀벌레소리 가득 차있었다」, 「天痴의 江아」, 「강가」 등이다. 이런 원숙한 시들의 창작은 『분수령』에 수록된 시들이 노출한 약점을 초극함으로써 가능했다. 따라서 그 약점은 어떤 것이며 그 약점이 어떻게 초극되었는지 이 문제부터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음은 「雙頭馬車」의 일부분이다.

나는 나의 祖國을 모른다
내게는 定界碑 세운 領土란 것이 없다
—그것을 소원하지 않는다

나의 祖國은 내가 태어난 時間이고
나의 領土는 나의 雙頭馬車가 굴러갈
그 久遠한 시간이다

나의 雙頭馬車가 지나는
우거진 풀 속에서
나는 푸르른 眞理의 놀라운 進化를 본다
山峽을 굽어보면서 꼬불꼬불 넘는 嶺에서
줄줄이 뻗은 숨쉬는 思想을 만난다

—『雙頭馬車』부분(41-42쪽)

일제의 언론탄압이 더욱 가혹해진 1937년에 “나는 나의 祖國을 모른다”고 첫 행에서 말한 것은 주체적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진술은 유종호도 지적했듯이 ‘나에겐 조국이 없다’는 말의 둘러대기 어법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¹⁹⁾ 특히 “내게는 定界碑 세운 領土란 것이 없다”는 진술은 더욱 대담하다. 그것은 타국에게 ‘조국’의 ‘영토’를 빼앗긴 것을 강하게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나는 “그것을 소원하지 않는다//나의 조국은 내가 태어난 時間이고/나의 領土는 나의 雙頭馬車가 굴러갈/그 久遠한 시간이다”고 말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조국 이탈 충동이 암시된다. 이제 그에게 조국보다 소중한 것은 “眞理의 놀라운 進化”나 “줄줄이 뻗은 숨쉬는 思想” 등이며, 끊임없는 ‘모험’을 위한 ‘여정’이기 때문이다. 그 모험이 그의 ‘조국’과 ‘영토’를 대신하게 된다.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그의 모험적 여행의 목적지로서의 ‘明日의 새로운 地區’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地區’의 성격은 모호하다. 바로 그와 같은 ‘時間’과 ‘眞理’와 ‘思想’ 또는 ‘새로운 地區’ 같은 말의 추상적 관념성이 이 시의 가장 큰 약점이다. 그와 같은 관념성은 1930년대에 유행했던 김기림과 김광균 등의 시가 속했던 모더니즘의 주지주의적 경향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한자어를 많이 쓴 것도 그 관념성을 입증한다. 이용악이 초극해야 했던 것은 그와 같은 시어의 관념성 이외에도 이용악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온 그에게

19) 유종호, 앞의 책.

영향을 준 모더니즘 취향의 극복이었다. 그 극복은 『쌍두마차』와 『국경』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수법을 병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런 모더니즘적 경향은 그의 시에 마이너스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입증하는 시가 『國境』이다.

새하얀 눈송이를 낳은 뒤 하늘은 銀魚의 鄉愁처럼 푸르다 얼어죽은 山토끼처럼 지붕 지붕은 말이 없고 모진 바람이 굴뚝을 싸고 돈다 강 건너 소문이 그 사람보다도 기대러지는 오늘 폭탄을 품은 젊은 思想이 피에로의 비가에 숨어 와서 유령처럼 나타날 것 같고 눈 우에 크다아란 발자국을 또렷이 남겨줄 것 같다 오늘

— 『國境』 전문(22쪽)

‘국경’은 조선과 소련의 국경일지도 모르고, “폭탄을 품은 젊은 思想”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성취한 소련을 마음의 조국으로 여기는 테러리스트의 ‘思想’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 1930년대의 양심적 작가들은 차이는 있을망정 ‘카프’의 문학운동도 포함되는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이용악처럼 유이민의 비극적인 삶에 관심이 컸던 작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볼 때 『국경』은 위험한 저항시의 요소가 없지 않지만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은 것이 ‘모더니즘’의 영향인 ‘銀魚의 鄉愁’와 ‘피에로의 비가’ 같은 서구적, 도시적인 이미지들로서 ‘새하얀 눈송이’나 ‘굴뚝’을 싸고 도는 ‘모진 바람’이 환기하는 북방정서나 삶의 현실과 어긋난다. 따라서 그는 모더니즘 취향을 극복하여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리얼리즘을 살려야만 했는데,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나온 시가 『北쪽』이다.

북쪽은 고향

그 북쪽은 女人이 팔려간 나라

머언 山脈에 바람이 얼어붙을 때
다시 풀릴 때
시름 많은 북쪽 하늘에
마음은 눈감을 줄 모른다

— 「北쪽」 전문(11쪽)

「국경」의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는 고향의 정서를 「北쪽」의 ‘하늘’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시가 소박하게 환기하는 ‘하늘’이 도착적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 ‘하늘’은 “시름 많은 북쪽 하늘”로 인간화되고 화자도 그 ‘하늘’과의 공감으로 말미암아 불면의 밤을 보낸다. 물론 북쪽으로 여인을 판 나라는 타국의 침략으로 멸망한 조선이고, 그 여인은 빈궁한 농가의 여인으로서 이용악 시에서 자주 언급되는 유이민에 속한다. 따라서 「北쪽」은 이용악의 유이민 시의 원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北쪽」은 유이민의 유랑으로 인한 고향상실과 그 유랑의 근본적 원인인 조국상실 및 그로 인한 그 나라 백성의 궁핍화를 절실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이용악의 유이민 시, 특히 저항시로서의 유이민 시를 주목하게 만든 요인들이 「北쪽」에 원형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

4. 유이민 시를 통한 소극적 저항과 적극적 저항

이용악의 저항시는 유이민의 고향 이탈과 그 후의 삶의 양상의 진술이나 묘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소극적 저항시와 적극적 저항시로 구분할 수 있다. 「도망하는 밤」,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풀벌레소리 가득차 있었다」, 「강가」는 소극적 저항시로서 일제의 억압과 수탈을 폭로하고 있다. 「天痴의 江아」와 「낡은 집」,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전라도 가시내」는 적극적인 저항시에 속한다. 이런 경향의 시들은 현실 폭로를

통하여 저항의지나 현실 타파의 의지를 암시하거나 유이민의 연대감이나 미래의 밝은 전망을 암시한다. 유이민 시는 그 구성에 있어서 대체로 유이민과 관련된 작중사건을 독자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지만, 『낡은 집』에서처럼 ‘털보네’ 가정의 고향 이탈과 그 후 버림받은 집을 중심으로 한 단편 서사시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용악의 저항시의 성격과 구성면의 특징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일제의 수탈정책으로 인한 고향 이탈이라는 현실을 취급한 소극적 저항시를 먼저 검토해보기로 하자.

『도망하는 밤』은 이용악의 대표적인 유이민 시다. 시적 화자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야간도주하듯이 고향을 떠난다는 내용을 다룬 이 시는 여러 시적 비유를 통해 일제의 ‘공포정치’를 폭로하고 있다. 공포의 땅으로 변해버린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은 그래서 ‘뺨다구’만 남은 마을로 비유된 황량한 농촌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냉철한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 함축된 저항성은 적(敵)의 정체나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암시하지 않았다. 또한 저항 주체가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농촌의 현실을 폭로했지만 그것을 초래한 일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음이 『강가』의 전문이다.

아들이 나오는 올겨울엔 걸어서라두
청진으로 가리란다
높은 벽돌 담 밑에 섰다가
세 해나 못 본 아들을 찾아오리란다

그 늙은인
암소 따라 조이밭 저쪽에 사라지고
어느 길손이 밥 지은 자천지
끄슬은 돌 두어 개 시름겨웁다

— 『강가』 전문(87쪽)

『강가』에서의 아들은 소작쟁의 등을 통한 대지주농민투쟁의 중심인물일 것이다. 높은 벽돌담은 ‘청진’ 감옥의 비유다. 이용악은 아들을 만나고 싶은 늙은이의 간절한 소망을 통하여 아들의 입옥(入獄)이 초래하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암시하고 있다. 제 2연에서의 ‘어느 길손’의 고통스러운 유랑 과정은 “밥 지은 자천지/끄슬은 돌 두어 개”로 암시된다. 이 구절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화자가 자신을 “끄슬은 돌 두어 개”에 감정이입하여 그것들이 시름겨운 인간으로 화신된 점에 연유한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의 수법은 무익한 싸움을 방법적으로 완충하면서 궁극적으로 적을 제압하는 공격기제와도 같은 것이다”²⁰⁾라는 윤영천의 평은 과장이 심하다. 『강가』에서는 일제의 강압적 통치를 고발하거나 거기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강가』는 소극적인 저항시다.

이용악의 소극적 저항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작품으로는 『풀벌렛소리 가득차 있었다』를 들 수 있다.

우리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寢牀 없는 最後의 밤은
 풀벌렛소리 가득차 있었다

露領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아마을灣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 『풀벌렛소리 가득차 있었다』 부분(16-17쪽)

20) 윤영천, 앞의 책, 217쪽.

『풀벌레소리 가득 차 있었다』는 유이민의 죽음을 노래한 시이다. ‘露頌’을 왕래하면서까지 자식들을 키운 아버지의 죽음을 그 자식들이 독자에게 전하는 형식을 취한 이 시에서 기억에 남을 표현은 “아버지의 寢牀 없는 最後의 밤”,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인데 그 밤에 가득 찬 것은 ‘풀벌레소리’라는 구절이다. 자기 집이 없는 타향에서 그것도 얼음장 같은 방에서 죽는 것은 유이민의 막다른 처지를 암시한다. 그리고 ‘풀벌레소리’는 그 처지를 안타깝게 강조하기도 한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는 아버지가 최후까지 인간적 품위를 지켰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비록 유이민으로서 러시아의 여러 곳을 떠도는 신세였지만 떳떳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그 죽음을 동포의 은유로 볼 수 있는 풀벌레들도 몹시 아쉬워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밤을 그것들이 울음소리로 애도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유이민의 생활과정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의 최후까지 추적한 이 시는 소극적 저항시에 속한다. 일제의 토지약탈이 농민의 광범한 궁핍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유이민이 생겨났고 아버지도 그 희생자라는 것을 암시하거나 예둘러 말하고 있다.

이용악의 보다 강한 호소력이 있는 유이민 시에는 일제의 통치에 짓눌린 농민의 고향 이탈을 사건화함으로써 일제를 고발하는 도전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적극적인 저항시로는 『天癡의 江아』,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전라도 가시네』 그리고 『낡은 집』이 대표적이다.

국제철교를 넘나드는 武裝列車가
너의 흐름을 타고 하늘을 깰 듯 고동이 높을 때
언덕에 자리잡은 砲臺가 호령을 내려
너의 흐름에 선지피를 흘릴 때
너는 焦燥에
너는 恐怖에

너는 부질없는 전율밖에
가져본 다른 動作이 없고
너의 꿈은 꿈을 이어 흐른다

네가 흘러온
흘러온 山峽에 무슨 자랑이 있었느냐
흘러가는 바다에 무슨 榮光이 있으랴
이 은혜롭지 못한 꿈의 饗宴을
傳統을 이어 남기려는가
江아
天痴의 江아

— 「天痴의 江아」 부분(28-29쪽)

이 시가 고발하는 대상은 둘이다. 하나는 ‘국제철교’가 상징하는 제국주의적 침략국가(일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외세 침략에 저항하기는커녕 자기의 꿈만 아름다운 듯 고집하는 ‘天痴’ 같은 ‘江’으로 상징된 전통주의자와 맥 풀린 백성의 사투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外來’의 색다른 문화를 추구하는 근대주의자다. 이들은 ‘江岸에 무수한 해골’이 상징하는 항일투쟁자의 죽음도 모른 채 한다. 그러나 이 시의 화자가 저항하는 보다 중요한 대상은 침략자다. 그 침략을 두려워하는 겨레에 대한 고발은 침략자를 고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화자가 그 강을 ‘天痴의 江’이라고 저주할 때의 울분의 대상은 침략자이다. 침략자에 대한 화자의 저항을 외면하는 그 ‘江’을 규탄한 것이다. “은혜롭지 못한 꿈의 饗宴을/傳統을 이어 남기려는가”라는 반문을 통하여 화자는 침략에 무력하게 대응하는 전통문화를 거부하고 그 ‘강’을 ‘天痴’라고 항의조로 언급함으로써 그것을 ‘天痴’로 만든 일제에 저항한 것이다. 그런 뜻에서 「天痴의 江아」는 적극적인 저항시에 속한다.

다음은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이다.

나는 죄인처럼 수그리고
나는 코끼리처럼 말이 없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너의 언덕을 달리는 찻간에
조고만한 자랑도 자유도 없이 앉았다

아모것두 바라볼 수 없다만
너의 가슴은 얼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다른 한 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지금
차는 차대로 달리고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건너 별판엔
나의 젊은 녀이
무엇인가 기대리는 듯 얼어붙은 듯 섰으니
욕된 운명은 밤 우에 밤을 마련할 뿐

—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부분(62-63쪽)

그 ‘차’가 달리는 철로는 조선과 만주의 침략을 위하여 일제가 부설한 것이다. ‘강 건너 별판’을 이리처럼 날뛰는 ‘바람’은 일제의 물질적 침략적 탐욕의 비유다. 화자는 식민지인이어서 궁지도 자유도 없다. 제 1연에 이어진 연에서 “너의 가슴은 얼었으리라”라고 말할 때 ‘두만강’은 조선민족의

마음의 상징이다. 일제의 강점으로 인하여 얼어붙듯이 자유와 희망을 잃은 조선 민족을 상징한 것이다. 그리고 일제의 침략적 야욕 앞에서 화자의 젊은 녀이 앞날을 기대하면서도 식민지인이라는 욕된 운명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지만, “다른 한 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다른 한 줄 너의 흐름”은 일제에 대한 저항의지를 암시한다. 그의 저항의지는 “얼음길은 거칠”고 가야 할 “길은 멀다” 해도 “욕된 운명”을 결코 슬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표출된다. 이처럼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는 항일의지를 잠복시킨 점에서 적극적인 저항시라 할 수 있다

「낡은 집」도 일제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지를 표현한 시이다.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등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찾길이 뉘이기 전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보냈다는
그날 밤
저릐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중략...)

그가 아홉살 되던 해
사냥개 핏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데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쫓았다

— 「낡은 집」 부분(70-72쪽)

「낡은 집」은 단편 서사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털보네’ 가족이 고향을 떠난 후 그 집이 마을 사람들이 피하는 ‘흉집’이 된 내력을 이야기한다. 것처럼 ‘흉집’이 되는 과정의 서사를 통하여 ‘낡은 집’은 일제 침략으로 멸망한 나라, 조선의 상징으로 읽히게 된다. 그 점에서 이용악의 탁월한 시적 형상화능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그의 항일 저항성을 확증하고 있다.

3연에서 언급된 “찾길이 뇌이기 전”은 약소국 침략을 위한 철도가 부설되기 전으로서 그때 농촌은 노루 ‘멧돼지’와 ‘쪽제비’로 상징된 자연과의 동

양적인 융합을 즐기고 털보의 셋째 아들도 태어나 그런 안락한 삶을 영위 하던 곳이었다. 그런 삶의 평화와 즐거움이 무너지고 털보의 가정이 해체 된 것은 일제의 한국강점 탓이다. '털보네' 가족이 만주로 떠나는 비극이 일어나도 '자연'이 여전한 것을 '사냥개'와 '꿩'의 관계를 통하여 암시한다.

6연의 '털보네' 가족이 밝은 눈 위의 "발자욱만 떨고 있었다"는 표현은 '발자욱'과 그것이 찍힌 눈을 인간화하는 동시에 그 '눈'에 의하여 털보네 가족의 때묻지 않은 마음과 그들에 대한 극도의 연민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눈'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털보네 집의 황량한 풍경은 역설적으로 털보네의 지난날의 평온한 삶을 독자로 하여금 매우 아쉬워하게 만들고 그 집을 '홍집'으로 전락시킨 침략자를 증오하도록 한다.

7연에서도 '털보네' 가족이 유이민으로서 떠도는 나라가 '무서운 곳'이리 라고 '이웃 늙은이들'로 하여금 추정하게 함으로써 털보네 가족에 대한 독자의 연민을 끌어내고 있다. 물론 그 연민은 일제에 대한 저항의 정서적 수단이다. 「낡은 집」은 결코 「도망하는 밤」, 「풀벌레소리 가득차 있었다」 같은 유이민 시가 아니라 복잡하고 교묘한 서사 전략과 은유를 통하여 일제의 죄악을 적극적으로 고발한 저항시에 속한다.

「전라도 가시내」는 이제까지 많이 논의되어온 유이민 시다.

알록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뻔더라 까무스레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드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미더운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겨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켜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쪽으로 얼굴을 가렸더나

(...중략...)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소리에 취한 듯
대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집은 분홍 땀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감아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옥도 없이 사라질 게다

— 「전라도 가시내」 부분(95-96쪽)

『전라도 가시내』는 북간도 주막에서 우연히 만난 전라도 출신의 유이민에 대한 함경도 사내의 애뜻한 우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 우정이 연대감정으로 깊어진다. 여기에는 역사적 사정이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난한 농가 출신의 유이민인 동시에 지난날 조선의 지방차별주의 정책의 희생양이기도 했던 것이다. ‘함경도 사내’가 그녀에게 느낀 연대의식은 “가시내야/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두어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줄게/손때 수집은 분홍 댕기 휘 휘 날리며/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는 구절로 암시되고 있다.

그 연대의식의 약점이 “그러한 연대의식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현실의 비극성을 주관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으로 마무리지어지고 있다”²¹⁾고 말한 논평은 부당하다. ‘함경도 사내’와 ‘전라도 가시내’가 유이민이기 때문에 그 연대의식의 적극적 형태로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윤영천이 “그들의 삶은 분리된 개체로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튼튼한 공동운명체로서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²²⁾고 논평한 것은 과장적이다. 사내가 그녀에게 느낀 연대감정이 아무리 짙을지라도 유이민으로서의 그들의 처지로 볼 때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했다. 그 사내는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진술된 대로 정치없이 다시 그 주막을 떠나기 때문이다.

『전라도 가시내』의 매력은 그 극적 구성과 섬세한 심리적 관찰 및 정치적 암시어의 덕분이다. ‘때아닌 봄’은 난데없이 닥쳐올 수 있는 조선민족해방의 날을 암시하고 비록 잠깐일지라도 즐겁게 돌아갈 ‘나라’는 ‘전라도’와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주권이 회복된 ‘나라’도 암시한다. 바로 그 점에서 ‘함경도 사내’가 ‘전라도 가시내’에게 절감한 연대의식은 비록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저항의식이 함축된 것이다. 그 연대의식의 일시성이 안타까운 감동을 준다. 그것이 유이민의 연대의식의 한계임을 독자

21)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8, 752쪽.

22) 윤영천, 앞의 책, 222쪽.

는 긍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때이난 봄'의 희망에는 항일감정이 잠복해 있다. 「전라도 가시내」는 이용악의 적극적인 저항시에 속한다.

5. 결론

이용악 시의 항일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그의 출생지와 학업을 추적해본 결과, 자연과 융화된 출생지에서 자연스럽게 스민 북방정서와 카톨릭 계통의 대학과정에서 받은 종교적 영향이 훗날 유이민의 현실을 직시하고 저항시를 쓰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용악 시의 저항성은 유랑, 고향 이탈, 좌절, 식민지 약탈로 인한 유이민의 생활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산물이었다.

그의 시는 주로 유이민의 피폐해진 생활현실을 폭로함으로써 소극적으로나마 저항성을 표출하곤 한다. 이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시가 「강가」, 「도망하는 밤」, 「풀벌레소리 가득차 있었다」 등이다. 그러나 그의 시세계가 심화됨에 따라 일제의 만행을 암시적으로 고발하는 방식을 통해 저항하거나 현실폭로를 통해 현실 타파 의지와 유이민의 연대의식 그리고 미래의 밝은 전망을 암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저항의지를 표출했다. 이를 입증하는 작품이 「天痴의 江아」,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낡은 집」 그리고 「전라도 가시내」 등이다. 이 저항시들은 1930년대 문단이 거둔 탁월한 업적에 속한다. 그 이후 그는, 일제의 언론 탄압 등 시대적 제약 탓일 것 같지만, 저항시를 지속적으로 산출해내지는 못했다.

이로써 확인된 것은, 이용악 시의 연구를 정치적 관점에 입각하여 소극적인 저항시와 적극적인 저항시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적극적인 저항시가 소극적인 저항시보다도 식민지적 조건의 극복을 위하여 더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래 이용악 연구자가 「북쪽」, 「강가」, 「도망하는 밤」, 「풀벌레

소리 가득차 있었다」 등을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밝은 집」 및 「전라도 가시내」와 동일한 수준의 작품으로 보고 검토해온 연구방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윤영천 편, 『이용악시전집』, 창작과 비평, 1988.

〈단행본 및 논문〉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연구』, 한얼문고, 1973.

김용익, 「현실인식과 서정성」, 『한국현대시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_____, 「현실의식과 서정성-이용악론」, 『한국현대시사』, 한국문연, 1996.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8.

김철준·임형재, 『이용악의 시의 시어 통계와 분석』, 도서출판 역락, 2009.

나병철, 「유민화된 민중과 디세미네이션의 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0집, 신아출판사, 2015.

유종호, 『다시 읽는 한국 시인』, 문학동네, 2004.

오문석, 「근대시의 역사지리학-이용악론」, 《문예연구》, 2006 겨울호, 문예연구사, 2006.

오양호, 「일제 강점기 북방과 시에 나타나는 시의식」, 『만주이민문학연구』, 문예출판사, 2007.

이수형, 「용악과 용악의 예술에 대하여」, 이수형 편, 『이용악집』, 동지사, 1949.

이승원, 『현대시인론』, 개문사, 1993.

최재서, 「시와 도덕과 생활」,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최현식, 「상실과 불화를 건디는 내면의 힘」, 상서학회 편, 『새로 쓰는 한국 시인론』, 백년글사랑, 2003.

한정호, 「이용악의 가족시-개인 체험을 넘어 민족 체험으로」, 《문예연구》 2006 겨울호, 문예연구사, 2006.

Abstract

The Study of Resistance in Li-Yong-Ak's Poetry

Lee, Kil-sang

As a preparatory investigation, we examined the birthplace and the Catholic university course of the poet. And we could find out that his birthplace gave him 'The Northern Emotion' and his university course helped to give him insightful observation of the emigrant's hard life.

His resistance we can find in his poetry was the result of his critical reflection on the emigrant's wandering, their frustration, their separation from the native country and the plundering policy of Japan.

Some of his poems resisted passively against Japanese rule exemplified by such poems as 「Beside the River」, and 「The Place was full of the Insects' Songs」. But as his poetry matured, his resistance became positive through the protest against Japanese barbaric rule over the Korean people exemplified such poems as 「A Dilapidated House」, 「O, the Idiot River」 and 「The Girl from the Chulla-do Province」. Of course, we must value more highly his active resistance than his passive resistance.

And so, we must not examine his positive resistance poetry on the same plane with his passive resistance poetry.

In future, if we affirm the political viewpoint is more effective in

the study of Li-Young-Ak's poetry, we must abandon non-political viewpoint which can not point out exactly the main features of the resistance of his poetry.

주제어: 유이민(emigrant), 현실폭로(exposure of the real aspects of life), 연대의식(sense of solidarity), 소극적 저항시(passive resistant poetry), 적극적 저항시(positive resistant poetry)